

어린이 책꽂이



▲기관사 선생님은=말을 하지 못하는 선생님과 일본 시골 학교 아이들이 펼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려진다.  
재일교포 2세 작가인 이주인 시즈카의 작품. 지난 1994년 출간 후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질 만큼 인기를 모았다.  
〈뜨인돌출판사·9천500원〉



▲어린이라서 좋은 이유=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책. 어른들은 무엇이든 다 잘할 것만 같지만 해야 할 일이 많고, 책임질 일도 많다.  
아이들이 누리지 못해 막연히 동경만 하는 어른들의 고단한 삶을 다양한 그림으로 보여준다.  
〈효리원·8천900원〉



▲마지막 수수께끼=할머니가 들려주던 옛이야기처럼 친근한 말투로 풀어낸 아동문학이 임정자의 판타지 동화.  
거짓으로 왕이 된 아이가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수수께끼를 풀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국내 다양한 신화가 결여되었다.  
〈해와나무·7천800원〉



▲새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효리원 출판사의 '대표 작가 대표 동화' 시리즈에 포함된 동화책. 지나친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 과정을 담았다.  
새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던 병아리가 둔 욕심이 생겨 새와 멀어지고, 다시 화해하는 과정을 그렸다.  
〈효리원·8천500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분필이 아주 작은 바다 생물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비롯해 거울·우유·플라스틱 공룡·운동화 등 생활 속 물건들이 어떤 재료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를 사실적으로 설명했다. 이를 통해 물건의 소중함을 깨우쳐준다.  
〈문학수첩리뷰북·1만5000원〉



▲백점만점 1학년=초등학교 입학에 앞둔 부모와 아이의 막연한 불안감을 날려주는 동화로 배우는 행복한 학교생활. 아이들이 학교가 얼마나 즐거운 곳인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입학에 앞둔 부모나 아이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글담어린이·9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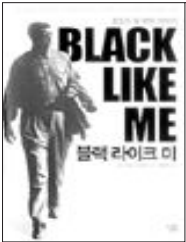


▲미셀처럼 공부하고, 오바마처럼 도전하라=오바마 대통령과 미셀 오바마의 성공 비결을 상세하게 담았다.  
열약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한 젊은 남녀가 역경을 뚫고 일어난 인간 승리의 기록이 담겼다. 이들의 공부 비법과 열정을 엿볼 수 있다.  
〈흐름출판·1만2천원〉

▲열정세대= 청소년 인권 활동가 '파이루'와 학생이 주인공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윤지' 등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노력하는 10대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양철북·9천800원〉

‘블랙 라이크 미’

존 하워드 그리핀 지음



올해는 ‘노예반대론자’ 에이브러햄 링컨(1809~1865년) 탄생 200주기가며, 미국 첫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취임한 해이기도 하다.

흑인은 세계에 존재하는 인종 중 하나이다. 하지만 외부 억압에 의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주해 온 많은 흑인들은 200년 전만 해도 미국 남부의 목화밭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다.  
그들에게 인권은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의 권리가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차별 속에서 살아야 했다.  
존 하워드 그리핀의 ‘블랙 라이크 미(Black Like Me)’는 흑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흑인으로 피부색을 바꾸고 살았던 흑인의 이야기다.  
저자는 1959년 흑인이 되기로 결심한다. 전차를 탈 때는 백인이 모두 타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들, 물 얻어 마시기 힘들고, 화장

실도 정해진 곳만 가야하는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또 그들에게 이 같은 인내와 굴욕을 강요하는 백인의 우월감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연구하기 위함이다.  
저자는 흑인이 되기 위해 피부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았다.  
색소 변화를 일으키는 약을 먹고, 강한 자외선을 온몸에 쬔었다. 피부의 일부가 탈색되어 백색으로 변하는 백반증 치료법을 통해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하얀 피부를 까맣게 태웠다.  
또 흑인 특유의 곱슬머리로 바꿀 수 없는 머리는 삭발했다. 완벽하게 변신한 그는 7주간 당시 인종 차별이 심했던 남부를 여행하며, 흑인의 삶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어느 날 버스 안에서 그는 자리에 앉았고 옆자리는 비었다. 중년 백인 여성이 탔다. 그가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이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려고 일어나려 하자 뒷자리의 흑인이 말했다. 백인이 앉지 않은 건 흑인 옆에 앉기 싫다는 표시였던 것이다.  
그는 다시 앉다가 백인 여성과 눈이 마주쳤고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날카로운 눈빛과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지? 나날이 뻔뻔스러워진단니까?”라는 흑인

비하 발언이었다.  
백인 젊은이들에게 이유 없는 협박을 받기도 하고, 쌓인 설움에 백인을 향해 증오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광기’마저 느꼈다고 고백했다.  
7주가 흐른 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오 하나님, 세상 저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요? 추한 모습을 드러낸 어떤 이상한 나라”였다고 고백했다.  
이 책은 출간된지 50년이 된다. 미국 사회에서 흑인에 대한 불평등이 사라지고는 있지만 이 책은 여전히 널리 읽히고 있다. 14개국에서 1천100만 독자가 읽었다.  
또 범아프리카협회 휴머니즘상, 아나스필드-볼프 도서상, 기독교 문화상 골드 메달, 지상의 평화상 등을 받았다.  
흑인 대통령이 취임한 미국에서 여전히 그리핀의 영웅한 실현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백인들의 무의식적인 폭력’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이 책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서 동남아 이주노동자·여성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이 책의 감동은 한국 사회에서도 유효할 것이다.  
〈살림·1만6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블랙 라이크 미’는 스스로 흑인이 돼 살았던 한 백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진은 연설을 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

식탁에 GMO 식품을 없애자

‘유전자 조작 ...’

김은진 지음



1998년 부터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GMO(유전자조작식품) 문제에 매달려온 김은진씨가 쓴 ‘유전자 조작 밥상을 치워라!’는 GMO가 가공식품의 형태로 우리 밥상에 침투한 사실을 폭로한다.  
GMO가 단순 유전자 변형이 아닌 조작임을 분명히 하고, 유전자 조작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보여준다.  
또 그림에도 불구하고 왜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것인지 거대 초국적기업과 정부의 결탁을 밝혀내고,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안전한 밥상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풀어낸다.  
“아이들이 즐겨 먹는 돈가스나 햄버거는 GMO의 결정체. 여기에 사용되는 고기는 물론 기타 부재료들이 대부분 GMO를 원재료로 하는 것들이다.”  
저자는 식량 자급률을 높여 식량 주권을 되찾는 것이 GMO의 위험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한다. 또 GMO 문제의 대안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씨앗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도솔·1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5세기 요리책에 숨겨진 비밀

‘비밀의 요리책’

엘르 류마크 지음



이탈리아인 요리사인 아버지에게 영감을 받아 쓴 엘르 류마크의 ‘비밀의 요리책’은 중세사회를 배경으로 한 픽션으로 유명한 인물의 삶을 재조명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곳에 살았을 법한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삶을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15세기 중세, 베네치아. 총독의 전속 주방장 페레로의 밑에서 요리사가 되어가던 루치아노는 어느 날 ‘비밀의 요리책’에 대한 소문을 듣는다. 연금술, 불멸의 약, 사람의 물약 등등 온갖 진기한 레시피가 들어 있다는 책에 대한 소문은 이미 베네치아 곳곳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하지만 사실이 책은 예수를 신이 아닌 인간으로 보며, 교회를 부정하는 엄청난 진실을 요리에 암호화하여 기록한 책이었던 것. 총독은 이 책을 찾아 나서고, 페레로와 루치아노는 위험에 처하는데...  
서리, 무화과, 토마토, 치즈와 만두, 달걀과 닭고기, 송아지 고기 그리고 사자 고기, 각종 향신료까지 재료가 갖고 있는 역사와 그것에 따른 메타포(은유)를 읽는 재미는 이 소설이 갖고 있는 가장 압도적 매력이라 할 수 있다.  
〈레드박스·1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히말라야 학교 설립 뒷얘기

‘세 잔의 차’

그레고 모텐슨 지음



히말라야에서 한 잔의 차를 함께 마시면 이방인, 두 잔은 손님, 그리고 세 잔의 차를 함께 마시면 상대방을 가족으로 여긴다.  
‘세잔의 차’는 K2등정에서 조난 당했다가 히말라야 코르페 사람들에게 구조된 미국 산악인 그레고 모텐슨이 차 세잔을 마신 산간 마을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78곳의 학교를 짓게 된 과정을 기록한 감동적인 실화다.  
단순히 계몽적 이야기가 아니라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그들과 동화되는 과정이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출간 이후 82주 넘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지켰으며 USA투데이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올라 화제가 된 책이다.  
류시화 시인은 “‘세잔의 차’의 저자가 가진 미국은 자신의 생애를 바친 마더 테레사나 국제구호단체의 관점으로 히말라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며 “그는 그마을에 진 빚을 갚으려 들어갔고, 마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었다. 겨우 한사람의 힘으로 세상에 무슨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있다.  
〈이레·1만3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이하 및 급 매물 중개 전문)

**공시지가+건물과표12억5천매매가7억5천**

▶ 45m도로 접 목욕탕 및 복합상가+주택  
북구 대 220p 건 400P

**분양가8억아파트1300세대 상가매매가2억5천**

▶ 35m도로 접 1층 상가 건물 약 100p 땅 지분 93p  
한의원 내과 적합

**공시지가+건물과표4억6천매매가3억5천**

▶ 현재 한의원 경영 중 대 130p 건 230p

**공시지가+건물과표6억5천매매가3억8천**

▶ 대 100p 건 300p

**강점가3억8천매매가2억**

▶ 장성 대 270p 건 180p  
▶ 1층 점포 6칸 별도 주택 2동  
▶ 2층 사무실

**30억빌딩급매**

▶ 대 200p 건 450p  
▶ 보 8억원 2350만원 용 13억포함

**☘ 공시지가 이하 급 매물 접수 환영**

###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 토지구합

**수원지구**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 건축상담

#### 토지매매

▶ 수원지구 333-1(명역면경계) 60미터 대로변 상업용지, 82만도  
주거(전) 720㎡ 33만 8000원  
▶ 수원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정문 앞구 상업용지 500㎡ ㎡당 210만  
▶ 수원지구 단원동 170㎡ 대 정문 앞구 자택지 330㎡ 33만 4500원

#### 상가·건물매매

▶ 평창구 한대 대지 743㎡ 건물 400㎡ 대 매가 700여  
▶ 수원동 원상가 1층 34㎡ 초중고점 매물 실 분기 전 매가 2800(임대)  
▶ 수원지구 주상복합  
\* 996세대 아파트 3,200여세대 중일 1층 67.5㎡(20.42%) 명역면경계 가능 매가: 5억 5천, 대용: 2~4억 가능  
\* 682세대 아파트 3,200여세대 중일 1층 101.64㎡(30.76%) 명역면경계 가능 매가: 5억 8천, 대용: 2~4억 가능  
\* 996세대 아파트 3,200여세대 중일 2층 35.5㎡ 매가: 9천, 대용: 4~5억 가능

#### 노블메디컬센터 임대분양

▶ 수원지구 중심상권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000㎡  
- 1층: 약국, 전의과,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안과 전문의 4곳  
- 2~5층: 병의원(내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 10여곳과 일반 의원 2곳  
- 원내 1차 의료장 및 원외 주치장 설치로 주주자 100% 확보

**※1층 파라마르티 임점확정**  
**6~8층: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원 확정**

**● 수원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

### 대표:설 봉규 (영남대학교 18-07-29)

전 원나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임  
전 조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임  
전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임  
전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임  
전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임  
전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임  
전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임  
전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임  
전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임  
전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임

**상가 주택, 숙박시설 (최고의 유통 전문가 추천 물건 다량 확보)**

지역	소재지	토지/건물(㎡)	경매일자	감평가	최저가
대구	동명동	287/921(5층)	3/5	5억9천	4억천
대구	동명동(여관)	274/320	3/5	3억5천	1억9천
대구	중앙동	218/413	3/3	3억6천	2억천
대구	중앙동	176/685	3/4	4억6천	2억8천
대구	우산동(여관)	424/1038	3/4	7억2천	4억
대구	월산동	252/813	2/2	3억2천	2억2천
대구	화산동	828/98	3/4	4천 배	2억8천

**주목 (향상 내집채부 고액 민족 우수 물건 다량 확보)**

지역	소재지	토지/건물(㎡)	경매일자	감평가	최저가
대구	동명동	78/95	3/5	6천7백	4천8백
대구	서대동	165/87	3/5	7천1백	4천8백
대구	화정동	128/131	3/4	8천1백	5천4백
대구	월산동	188/208	3/17	1억7천	9천8백
대구	운안동	137/193	3/2	1억5천	5천9백
대구	중동	138/159	3/4	9천5백	5천9백
대구	월산동	162/151	3/4	9천8백	6천7백
대구	신기동				

**이벤트 (고객 맞춤형 최고의 전문가 직접상담)**

지역	소재지	토지/건물(㎡)	경매일자	감평가	최저가
대구	서대동(미아동)	221/33	3/4	2억	1억4천
대구	동명동	467/2247	3/11	2억9천	1억2천
대구	농가사설	4888/1815	3/3	4억1천	2억8천
대구	농가사설(전원)	1263/746	3/2	1억5천	6천7백
대구	치평동(전원)	59/31	3/18	6천	5천8백
대구	우산동	96/42	2/28	8천/백	6천
대구	진달동(전원)	84/39	3/4	1억4천	9천4백
대구	월계동(전원)	96/42	3/17	1억2천	6천/백

**나주 장성 담양 회소 (공공, 농가사설)**

지역	소재지	토지/건물(㎡)	경매일자	감평가	최저가
대구	농가사설	467/2247	3/11	2억9천	1억2천
대구	농가사설	4888/1815	3/3	4억1천	2억8천
대구	농가사설(전원)	1263/746	3/2	1억5천	6천7백
대구	치평동(전원)	59/31	3/18	6천	5천8백
대구	우산동	96/42	2/28	8천/백	6천
대구	진달동(전원)	84/39	3/4	1억4천	9천4백
대구	월계동(전원)	96/42	3/17	1억2천	6천/백

**해령법률경매** **※11월29일**  
T:082-2265 H:P:011-605-7777 \*광주 전남권 경매 전문

### 명성공인중개사

**016-611-3424**  
**011-625-0510**

**수원 지구**

**1일 유통인구 30만명**

**모아아파트·우미아파트 앞**

**3면 도로 접**

**1층 330㎡ 분할가능**

편의점/이동통신/약국/인경점/호프전문점/집밥점포 앞 잔디광장 300㎡ 있음

**2층 340㎡ 170㎡**

소아과/치과/내과/전문클리닉센터

**3층 340㎡ 분할가능**

영어/수학/논술/과학학원

**4층 340㎡**

피부관리/요기원

**5층 340㎡**

커피숍/스무츠센터

**6층 200㎡**

레스토랑/호프전문점

**2009년 3월 입주예정**

### 다우공인중개사

**0523-8114** **011-603-1308**  
(용봉지구 현대3차 시가리)

▶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 대 360㎡/건 841㎡(지상 4층)/12m도로변 코너/용 5억6천만/보 2억3천월 800만원/매가 12억7천만

▶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 대 437㎡/건 870㎡(지상 4층)/15m도로변 코너/용 6억2천만/매가 13억5천

▶ **최고급 무인텔**

- 대 2,057㎡/건 2,248㎡/객실 28/용 15억/매가 28억원

▶ **농장용지(합평군 대동면)**

- 전 46,350㎡/2차선 도로 접/분할가능/매가 6억5천만

▶ **창고부지 및 전원주택지(고서면)**

- 14,109㎡(주거지역 8,870/그린벨트 5,239)/현재 단감 농원/매가 8억5천만

▶ **전원주택지 및 창고부지(정동동)**

- 1,421㎡/1층 주거지역/북계 도로접/남향/10m도로계획 선접/매가 12억5천만

**저희 사무소는 전국중개 의뢰한 물건만 취급합니다.**

### 대인동삼일부동산

☎ (02)223-1140, 020-001-002-7532  
(용봉지구 신본동, 대인동 소재지 인근)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 시내권 및 시외권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